

[찬양과 큐티 9]  
“나의 천국은 나의 가정”

김희석 성가사 / 2001 / 페이지 수: 1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나의 대학생살은 이유도 모르는 방향과 번뇌, 그리고 반항들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 꿈과 소망, 목표를 상실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려 책과 동아리에 묻혀 지냈다. 마음의 가난이 뛰고,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 잘난 체 하던 공허한 시절이었으며 알고 있으면서 저지르는 방종의 생활을 아파했던 시절이었다. 평안이 없고 목표가 안보여 불안하고 남들은 나보다 앞서가며, 나의 실력은 거품이라는 자책에 시달렸던 시절 마음이 가난하고 싶었고, 천국이 보고 싶어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시절이었다.

그 날도 여지없이 무거운 맘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매일 밤 10시에 들려지는 가정 예배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이 무거워 그곳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버거웠다. 첫 찬송이 불러지고, 기도가 시작됐다. 성경봉독 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고민과 아픔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를 만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네가 아파할 때 같이 우실 거다.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로 시작된 노래를 날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찬양을 끝낼 수 없게 했다. 그 후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됐다.

나의 꿈은 나의 가정에서 시작되며, 나의 천국은 쾌락도 책도 친구도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가정에 있음을, 나의 목표와 실력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있음을,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을 주님은 찬송 305장을 통해 알게 하셨다.

오늘도 졸려서 투정하는 나의 아기를 안고 항상 부르는 자장가를 들려준다.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출처 : 큐티와 일대일